



## 교회는 포도나무

(요 15:4-8)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편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귀한 부모님의 사랑도 변할 수 있고 친구의 우정도, 형제간의 우애도,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도, 사랑하는 부하도 언제나 변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고,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고, 불행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잘나가던 사업도 한순간에 불경기를 만나고, 잘나가던 직장에서도 한순간에 쫓겨나고, 믿었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천국같이 화평한 가정도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천사같이 순진한 내 마음도 한순간에 악마가 다스리는 휴지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교회에 나오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치명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기도하면 물질 세계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공격에 상처받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고, 어떤 물질 세계의 변화에도 적응하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오늘의 삶에 잘 적응하고 이겨내고 감당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수많은 배신을 당해도 배신하지 않으며,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으며, 고통과 피해를 당해도 보복하지 않으며, 변하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100% 믿고, 세상은 100% 믿지 않기에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시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나 무더운 광야나 산이나 들이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즐겁습니다.

### • 야곱

- 창 27:42      말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 창 29: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 창 31:2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 창 31:29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창 32: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창 34:1-2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창 37:34-35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 다윗

삼하 16:11 또 다윗이 아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 예수님

막 14: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 요셉(창 45:7-8)

창 37:18-20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창 39:14-15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변하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나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성전에 거하면 축복과 승리만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운동장입니다.

축구 선수의 꿈은 월드컵에 출전하여 세계 70억 인류 앞에서 훌륭한 선수로 뛰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기를 달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운동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수가 되기까지 피나는 노력과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훈련을 거칩니다. 그들은 훈련을 즐거워하며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모든 힘든 과정을 소화하고, 하루도 훈련을 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세상의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찮은 조그마한 보상을 위해서도 그 어려운 훈련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 영원한 축복, 무한한 축복, 값진 승리, 참된 축복을 위하여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천국의 대표 선수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영적 운동장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전 9: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히 12:12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나 가정, 직장에서 쉬운 훈련만 받고, 쉽고 편하게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선수는 될 수 없습니다.

눅 4: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갈 1: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출 3: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매